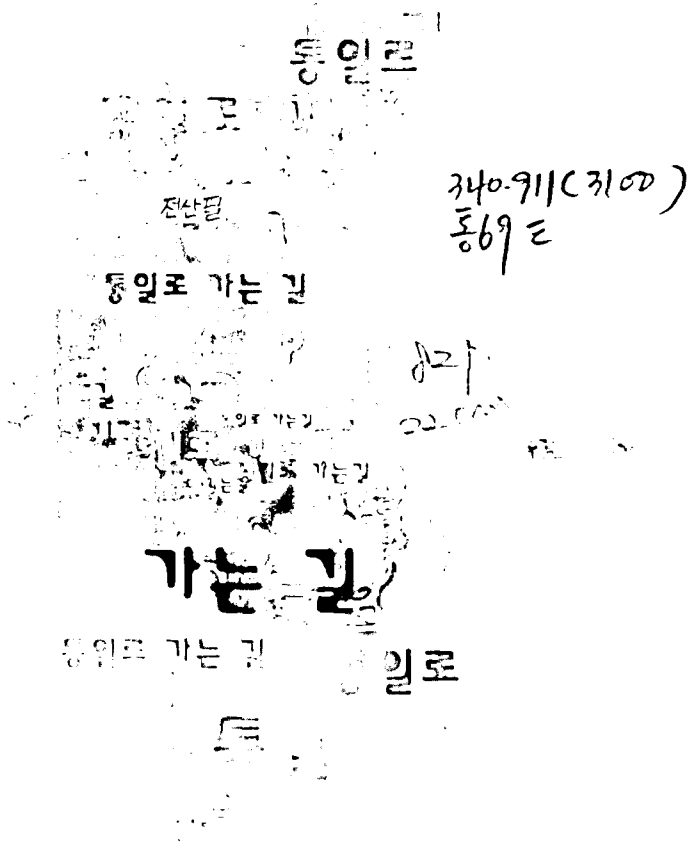


통일로 가는 길



통일원 통일교육원

차 례

부산북한관

시 부문	초등부:통일을 바라는 친구들/강민경-----	9
	중등부:답장없는 편지/김선경-----	10
	고등부:나의 소원으로 너를 부르리라/황순희-----	12
산문부문	초등부:한아버지의 고향/원지현 -----	14
	중등부:나의 북한 친구에게/김근화-----	16
	고등부: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에 관하여/강학화--	18

인천북한관

시 부문	초등부:통일이라는 숙제/오경화 -----	23
	중등부:어느 봄날/이희미 -----	25
산문부문	초등부:평화 통일을 위하여/이다애 -----	26
	중등부:전쟁과 평화, 그리고 통일/차지혜 -----	28
	고등부:하나의 새벽/안보윤 -----	32

광주북한관

시 부문	초등부:호랑이가 웃는 날/김아정 -----	37
	중등부:통일로를 걷는다/정동제 -----	38
	고등부:철조망/서정복-----	41
산문부문	초등부:통일/정수연-----	42
	중등부:우리의 봄을 기다리며/이지영-----	44
	고등부:민족공동체 통일방안/최한순 -----	46

청주북한관

시 부문	초등부:통일된 호랑이 지도/장혜진 -----	53
	중등부:통일이 오면/강하나 -----	56
	고등부:한 거래의 업원/박병연 -----	58
산문부문	초등부:무제/황보혜진 -----	60
	중등부:통일이 되면/김주영 -----	62
	고등부:통일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안승재 -----	64

제주북한관

시 부문	초등부:통일의 문/김명은 -----	69
	중등부:둘/고정현 -----	72
	고등부:통일이여 오거라/이송희 -----	75
산문부문	초등부:연에 담긴 하늘빛 소망/김보람 -----	76
	중등부:우리가 만나는 날을 위하여/송지은 -----	78
	고등부:마음의 문/이남경 -----	80

부산북한관

시부문

초등부

통일을 바라는 친구들/강민경 ----- 9

중등부

답장없는 편지/김선경 ----- 10

고등부

나의 소원으로 너를 부르리라/황순희 ----- 12

산문부문

초등부

할아버지의 고향/원지현 ----- 14

중등부

나의 북한 친구에게/김근화 ----- 16

고등부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에 관하여/강학화 -- 18

통일을 바라는 친구들

강민경

남일초등학교 4학년

기린은
기린은
목을 길게 빼고
북쪽 하늘 바라보며
고향 생각 하나봐

토끼는
토끼는
귀를 쫑긋 세우고
북으로 북으로
봄소식 기다리나봐

무서운 독수리도
북쪽 하늘 날고파
푸드덕, 푸드덕
날개짓 하네

내 친구
예슬아
통일이 오면
우리 통일 열차 타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무궁화 심으러 가자

답장없는 편지

김 선 경

남여자중학교 1학년

내가 11살적에
정성껏 쓴 편지에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었다

한달이 지나도
두달이 지나도...
그 편지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용기내어 써 보았지만
그 역시
답장은 오지 않았다

12번째 생일날
엄마는 내게
무엇이 갖고 싶냐고
물으셨다

내가 12살 될 적에
받고 싶었던 선물
그것은 예쁜 인형도 아니었고
멋있는 옷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쓴 편지의 답장이었다

지금 나는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한 번 써 본다

그리고
기다린다

우체부 아저씨의
도움 없이도
내가 쓴 편지를
직접 줄 수 있는 그날을

그날이
빨리 왔음 좋겠다

나의 소원으로 너를 부르리라

황 순 희

대광공고 3학년

나
바람이 되려 한다.
나를 네게 실어 나르며
너를 흔들어 깨우리라

나
망망대해를 누비는
새가 되려 한다
내 낮은 한없이 네게
날아오르리라

비가 내리고 있었다
너의 버스는 나를 떠났고

나
두 팔을 짓히며
고개를 눕혔다
내 몸을 구슬러 떨어진
빗방울은 길을 따라
흘러 내려 갔다

노래를 불렀다
이 거리에 쏟아지는
빗물을 들이 마시며
너의 이름을
찾았다

너의 눈에
굳게 닫힌 창이 보였고
내 노래는 너를 가둔
두꺼운 창에
부딪혀 깨어졌다
그런 나를 빗물은
다시 씻어 내려 한다

오늘,
어느 유월의 흔적으로 명든
하늘을
새 두 마리가
날은다

할아버지의 고향

원 지 현

동래초등학교 6학년

우리 학교에서는 급식을 한다. 그런데 항상 아이들은 편식을 하고 반찬과 밥을 많이 남긴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북한은 지금 쌀도 부족하고 해서 식량난으로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굶주리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찬을 남겨서 되겠니?”

말씀하시자 난 괜히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너희들은 북한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니?”

선생님께서 다시 말을 이으셨다. 그러자 난 서울 외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걸려있는 백두산 천지 사진을 액자로 해 놓은 것이 떠올랐다.

지난해 겨울 방학 때 일이었다. 우리 가족은 1년에 한두번씩 서울 외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간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는 아주 큰 백두산 천지 사진을 액자로 해 놓은 것이 거실에 걸려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꼭 가보고 싶으신 곳이라 늘 거실에 걸어 놓고 보신다는 말씀에 관심이 깊어졌다. 그러나 난, 공금함과 함께 가졌던 호기심이 지난해 무장 공비가 들어옴으로서 사라지고 조금 반감을 느끼게 되었다.

“할아버지, 왜 북한과 우리는 계속 떨어져 가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오고 가지도 못하고 소식조차 전할 수도 없다니…….”

그 때 할아버지께서 고향 생각이 나셨는지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나에게 말씀 하셨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때문이란단다. 공산당들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몇 십년이나 서로 소식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셔서 괜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우리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백두산을 볼 수 있는 날이 돌아와야 되텐데…

통일을 하면 북한은 더 나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남한은 많은 지하자원과 인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을텐데 아쉬운 마음 뿐이다.

얼마전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온 가족이 만삭이 된 산모까지 데리고, 벌써 몇 차례의 북한 가족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얼마나 굶주리고 살기 힘들면 그랬으랴...; 자꾸 이렇게 어렵고, 밑기전에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말로말 들어보고 사진으로만 보던 백두산도 가보고 싶다.

“할아버지, 통일이 되면 저와 같이 백두산에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고향에도 가 보구요”

“그래...”

할아버지께서 날 쓰다듬어 주시며 흐뭇해 하셨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

나의 북한 친구에게

김 근 화

연산여중 3학년

나무들의 푸르름은 날이 갈수록 한층 더 짙어저만 가고 있어. 여름이 벌써 성큼 다가왔구나. 날씨가 좀 무덥다. 하지만 이렇게 또다시 팬을 들게 되니, 기분이 새로워. 내가 누구냐고? 지난 번에 편지 보냈었잖아. 살기 좋은 곳, 부산에서 사는 근화라고. 설마 벌써 잊은 것은 아니겠지?

처음에 편지 썼을 때처럼 어색하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한민족이라는 이유때문일 거야. 그것만은 어떤 사람이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난 아직까지도 너희들의 생활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냐. 분단된 시간속에서 꿈꿨던 걸어잡근 마음의 문을 한 순간에 열기는 서로에게 무척 힘든 일이니까. 가끔 교과서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북한의 사정을 보고 있을 때, 너무도 놀라워서 입을 다물기가 힘든 적도 있었어.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정도로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웬지 멀게만 느껴졌단다. 반세기라는 시간의 벽이 이렇게 두꺼운 줄은 몰랐거든.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으려면, 마음을 활짝 열고 거대한 시간의 벽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해. 북한에서 생각하는 '무력'이 아닌, '평화'로 말이야.

시대로 죽음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힘. 그게 무엇인지 아니? 바로 사랑이야. 같은 민족끼리 애뜻하게 보듬어 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겐 필요해. 지금의 우리는 서로를 너무 미워하고 있어. 나조차도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진정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각자의 마음속에서 키워나간다면, 통일의 날이 보다 빠르게 다가오리라 믿어. 나부터라도 북한의 사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해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아직까지도 통일에 대한 주변의 의견은 그리 좋지 않아. 아마 통일 후에 오게 될 혼란이 두려워서이지. 통일 그 자체가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닐거야. 이런 반응은 통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거라고 생각해. 내일 당장 통일이 되더

라도 서로 잘 도와주기만 한다면 어떤 혼란이 닥쳐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해. 우린 한겨레이고 한핏줄이니까.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들 하지. 난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전쟁 생각만 해도 무섭고 소름이 끼쳐. 오히려 서로에게 큰 고통만 주고 아픔지 않는 상치만 남게 될거야. 또 남한과 북한의 사이도 더 멀어질 거야. 이런 전쟁을,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맛보아야 하는 전쟁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넌 통일이 된다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니? 난 꼭 할머니의 고향인 함경북도에 찾아갈거야. 그 곳에서 친척도 찾아볼 생각이고 이렇게 마음만 잔뜩 부풀려서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나의 무능력함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도 통일은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나의 무능력만을 원망하는 것 보다는 우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겠지? 너도 물론 남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고 있을거라 믿는다. 항상 너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자신의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주위의 불우한 사람들을 한번쯤은 돌아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있을텐데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내가 누리는 행복을 나눠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기까지 해. 음식쓰레기가 철철 흘러넘치는 남한. 먹을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둘러봐도 부족하기만한 북한. 너무나 억울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현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 또 우리와 너희라는 이름으로 구분지를 수밖에 없는 가슴아픈 사실들. 오직 사랑과 평화만으로 갈라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만을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어. 나의 이 편지가 정말로 너의 가슴속에 와 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되는거야.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여기서 줄인다. 몸 건강히 잘 지내라. 안녕.

1997년 6월 21일

근화 슝

추신:너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우리의 소원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꿈에도 소원은 통일 / 이 정성 다해서
통일 / 통일을 이루자. (후략)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에 관하여

강 학 화

부산과학고등학교 2학년

휴전 50년 미소간의 침예하던 이념적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채 긴 시간이 흘렀다. 이미 실리주의가 팽배한 세계정세 속에서도 50여년 전의 이념 대립으로, 그것도 타국에 의한 신탁통치로 그어진 남북간의 금을 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속에서 우리는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50여년의 시간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우리는 이미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부터 제 2 세대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이제 6·25라는 사건을 실제로 겪었던 이들은 서서히 사회무대의 안쪽으로 사라지고 있다. 소위 기성세대라 불리는 중년층에서조차도 6·25를 다만 역사속의 비극으로만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하물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겠는가.

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통일안 보교육을 받아왔다. 6·25, 민족의 아픔, 갈려진 겨레, 공산당원, 그리고 이산가족들. 상투적으로 들리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통일이라는 어떠한 개념도 체 서기 전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은 6·25를 모른다 겪 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조차 역사책속의 세계대전처럼, 아니 어쩌 면 저 옛날 임진왜란 만큼이나 아득한 얘기인 것만 같다. 어쩌면 너무나 편한 시대 에서 살아왔기에 그 산 증거물을 보면서도 우리에게서는 전쟁도, 분단도 그다지 실제 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지 모른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당위성도 '우리의 소원' 하면 '통일' 하고 주지없이 튀어나오게 만들어 버린 '우리의 소원' 노래 처럼 반쯤은 세뇌당하다시피 되어버린 개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자세가 다가올 통일시대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기성세대가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라면, 나와 모든 청소년들은 실리주의 시대의 세대이다. 사조의 영향을 받아 다소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경 향을 띠는 제 2 베이비 붐 세대. 다가올 통일시대를 이끌고 갈 주역은 바로 이러한

우리세대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아직 명확한 통일의식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세대는 통일에 있어서도 그 실리적인 면만을 보는 그릇된 통일관을 갖기가 쉽기 때문이다. 물론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 경제적인 이익도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만을 바라보고 아무런 주체적 통일외식 없이 통일시대를 열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북한과 더불어 침체의 길을 걷게 될 뿐이다.

어떠한 식으로든 곧 통일은 도래한다.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종식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국과도 손잡는 세계적 흐름속에서 언제까지나 북한만 고립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곧 세계를 휩쓸었던 자유주의·민족주의의 물결이 북한에도 몰아닥칠 것이며 시기가 늦은 만큼 이는 엄청난 가속도를 더해 북한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50여년간 사회주의를 고집해 온 북한으로서는 이 혼란을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사회 모순과 기근을 해결하고 세계적 흐름을 따를 준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머지않아 닥칠 북한의 혼란과 변혁을 함께 이겨내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을 우리의 거래로서 인식하고 함께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머지않아 그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은 안일하고 개인주의적·실리주의적인 사고를 통일문제에 까지 접목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단지 통일이 가져다 줄 경제적인 이익들-국방비 절감, 효율적 국토이용 등에만 급급한다면 사회전반의 흐름을 개혁하고 함께 통일조국을 이루어 나갈 북한에 닥친 혼란을 함께 이겨낼 수 없을 뿐만아니라 통일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 적대감으로 사회적 분열로 치달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통일을 이루는 힘은 단지 서로의 냉혹한 이익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 거래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무리한 핵개발, 고립된 경제체제, 시대착오적 무력도발계획 등.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북한의 흐름을 바로잡아 줄 힘이 부족하다. 그 힘을 갖추어 나가야 할 우리 청소년들은 우선 북한에 대한 관념이 자기중심적·실리적 색채를 띠고있는 것은 아닌지, 통일에 대한 의식이 스스로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듯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동포가 바로 우리의 거래임을, 임진각 너머 손에 잡힐 듯 바라다 보이는 우리 국토의 일부임을 인식해야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올바른 통일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통일조국으로서 세계에 자랑스레 설 수 있게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인천북한관

시 부문

초 등 부

통일이라는 숙제/오경화 ----- 23

중 등 부

어느봄날/이희미 ----- 25

산문 부문

초 등 부

평화 통일을 위하여/이다애 ----- 26

중 등 부

전쟁과 평화, 그리고 통일/차지혜 ----- 28

고 등 부

하나의 새벽/안보윤 ----- 32

통일이라는 숙제

오 경 화

산곡북초등학교 5학년

가족끼리 봄나들이 간
통일 전망대

입진강 너머로 보이는
북녘땅은
몇 미터 되지도 않았다

'이가까운 거리를 두고
한 민족이 말 하지도
보지도 못할까?'

이런 코앞의
땅을 보며
웃음을 짓는
사람은 없었다

북한 땅을 보니
통일은 왜 안되는지
궁금 하였다

그래서 아빠께
여쭙었더니,

풀리지 않는 숙제는
없다고 하시며
경화야 너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면
통일이 될 거라고
아빠께서는
말씀 하셨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라는 숙제가
빨리 풀려서

한민족이 만나서
얼싸 안고
이야기 하였으면 좋겠다

어느봄날

이 회 미

개산여자중학교 2학년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위에서 해가 빛났다

정말 봄 다운
맑은 햇빛이었다

봄이로구나, 봄이야

세상이 온통
봄으로 빛나고 있구나

갑자기
맘 한 구석에
그림자가 지어졌다

저 북쪽땅에도
이런 햇살이 비치고 있을까

저 북쪽 땅에도
봄이 미소 짓고 있을까

아니
우리들의 마음속엔
저런 햇살이 비치고 있을까

한없이
우울해 졌다

평화 통일을 위하여

이 다 애

건지초등학교 6학년

철마는 곧 달릴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면서 우리 가족은 '평화통일'을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북한 땅 연백이 고향이신 우리 할머니께서는 뜻하지 않은 6·25의 전쟁으로 가족과 잠시만 헤어져 있으면 곧 만날 수 있겠지 하시던 생각이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이 되셨습니다.

며칠 전 우리 할머니의 72회 생신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은 할머니를 모시고 '통일전망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태운 자동차가 행주대교를 지나 자유로를 시원하게 달릴 때에는 내 마음은 너무 기뻐서 콧 노래가 나왔고 할머니께서도 즐거워 하시며 미소를 지으셔서 나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통일전망대에서 보게 되는 북녘땅은 어떤 모습일까?

'통일 전망대!'

궁금하게 생각되었던 내 눈에 드디어 오두산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을 태웠던 자동차는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오두산 입구에서 멈추는 순간 분단의 아픔을 느끼면서 자동차에서 모두 내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차례대로 버스를 타고 통일 전망대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흰 구름이 떠 있는 북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눈 앞에 보이는 고향땅을 그리워 하시며 금새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망원경으로 바라 본 북녘 땅은 너무 가까운 곳이라서 생신 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고향 땅을 눈 앞에 두고도 갈 수가 없는 할머니께서는,

"내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꼭 밟아 봐야 할 텐데…"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를 부모님께서서는 평화 통일이 되면 꼭 다녀오실 수 있으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으셔야 된다고 위로 해 드렸습니다.

나는 할머니께서 즐거운 생신 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그토록 남한에서 '평화 통일을 위하여' 나서기를 원했지만 김일성은 갖은 핑계로 이를 거절하고 동포들에게 강제로 적화통일의 야욕을 키우게 하고 무장 간첩을 남파해서 귀한 생명들이 원통하게 세상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지 못하고 동포들에게 가난과 고통만 남겨 주었으며 이산 가족들에게 원망과 눈물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진방실에 가서 비디오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뒤떨어진 경제와 어렵게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의 생활모습을 보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남한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살을 빼려고 굶는데 북한에서는 먹을 식량이 없어서 배고픔 때문에 남한으로 목숨을 걸고 귀순 해 오는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통일관에 전시된 북한의 의류와 생활 용품은 내가 보아도 품질이나 기술면에서 우리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뒤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실에 전시된 교과서와 북한 동화에 호기심을 느끼며 관심있게 살펴 보았는데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우리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국어의 낱말 뜻과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별로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6·25의 전쟁으로 변해 버린 우리의 찬란한 문화,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같은 민족이었고 다정한 형제였는데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며 언어까지 변해 버린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이 남긴 나쁜 결과였다는 것을 북한 동포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통일 전망대를 내려오다가 남과 북을 자유롭게 날아 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으며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나의 조국이 하루 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 지도록 내가 맡은 일에 책임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북한관 잔디에 앉아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다짐 해 봅니다. 내가 어른이 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이산의 아픔과 전쟁을 모르는 세상,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는 세상, 언제나 웃음 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소원이자 염원인 '평화 통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전쟁과 평화, 그리고 통일

차 지 혜

제물포여자중학교 3학년

철조망, 녹슨 첩모와 고장난 군용 트럭, 철조망 위를 넘나드는 나비 한 마리. 그리고 한 소녀의 독백.

“세상이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얼마전 TV에서 보았던 어느 제품의 선전이다.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자유롭게 철조망을 넘나드는 한 마리의 나비. 거기에서 난 전쟁을 보고 평화를 볼 수 있었다. 요즘은 이렇게 전쟁이나 분단을 소재로 한 광고가 부쩍 늘고 있다.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전쟁과 평화라는 의미가 새삼 가깝게 다가온다. 물론 내가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또한 실향민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듯 들어온 탓인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초등학교 때는 종종 북한을 상상하곤 했다. 그토록 아름답다는 금강산과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무척이나 궁금했었다. 반 나절 내내 고민 고민하다가 끝내 상상해 내지 못했을 때의 그 안타까움이란... 하지만 사람이 오기란 것이 생기는지 포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더 깊이 생각에 잠기곤 했다.

내가 처음 백두산을 본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물론 그전에도 백두산의 사진은 수도 없이 보았지만, 그런 시시콜콜한 흑백사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길거리를 지나다 세로로 세우면 꼭 내 키만한 백두산 천지의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그냥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감탄에 감탄을 연발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우리 나라 안의

산은 수도 없이 가보았지만 그 많은 산 중에서 여지껏 백두산 같은 산은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정말 난 세상에서 그토록 장엄한 빛을 발하는 산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어쨌든 그 후로 나는 비단 백두산이나 금강산 뿐이 아닌 북한 전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곳에서 살면 정말 행복한 거라는 생각까지도 해 보았다.

하지만 얼마전 신문에서 본 북한 주민의 모습은 나의 그런 상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다. 거기서 나는 빼만 남은 앙상한 모습을 한 주민과 불룩한 배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굶주린 표정들만을 보았던 것이다. 그 사진을 처음 본 순간 나는 그것이 소말리아 같은 곳의 난민들인 줄만 알았고 그것이 한 피를 나눈 북한 주민들이란 걸 안 순간 그만 눈물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을 보듯 알팍한 동정심이 아니라 모두가 내 형제같고 부모같은 진정한 동족으로부터 나온 눈물이었다.

그리고 눈 앞을 가린 흐린 장막을 애써 감추고 그 밑의 기사를 읽으면서 나의 슬픔은 점차 분노로 바뀌어 갔다. 그것은 꼭 내 동생이 혹은 언니나 오빠가 다른 누구로부터 억울하게 맞고 왔을 때와 같았다. 그 기사에는 북한 인민군 창설 65주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 내용과 조그마한 사진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인민군들의 모습은 앞의 사건에서 본 주민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너무도 건강한 모습들. 자신의 부모, 형제들은 지금 이 순간 굶어 죽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들에 대한 분노는 또다시 슬픔으로 변화였다. 그들에 대한 슬픔으로 말이다. 그들도 아마 배급된 식량을 먹으면서 자기의 부모님 생각을, 형제의 생각을, 아내의 생각을 혹은 울고 있는 아이들의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먹지 못했던 때도 한 두 번이 아닐 것이다. 그래,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다. 굶이 탓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주석이라고 하는 김일성과 고위급 관리들을 탓해야겠지.

신문을 접으며 나는 또 다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남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다. 지금 우리의 형제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나무 껍질도 다 뜯어 먹어 없고, 당장 살아남기 위하여 그 옛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서로 바꿔 먹었다던 얘기가 재현되고 있는 북한의 모습에 비해 남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과소비와 온갖 사치스런 생활들,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악한 모습들, 그리고는 말로만 통일을 거부하는 북한을 탓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북한을 탓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 아닐까? 언젠가 읽었던 신문기사가 생각난다. 거기에는 우리 남한의 부족함 없는 생활과 음식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현실에 대한 한 북한 주민의 얘기가 나왔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나의 마음을 비수처럼 날카롭게 파고 들었다.

“그렇게 몰자 소중함을 모르고 낭비하는 사람들과 통일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같이 산답니까?”

남한을 자랑하려고 말을 꺼낸 기자가 오히려 비난의 말만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소신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북한은 결국 무너져도 무너지는 것은 정권이지 북한 주민들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한 남한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부끄럽다고 느꼈다.

결국 우리는 통일을 하고 말 것이다. 북한이 아니 북한의 지도자들이 지금은 억지로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멀지가 않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 비용도 마련해야 하며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되주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결코 지난 50여년간 부러져 있던 뼈가, 그리고 상처가 빨리 아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백화점 왕 페니는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는가? “신념과 인내는

성공의 계단이다”라고 이 말과 같이 통일의 성공을 위해 신념과 인내라는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 올라갈 때, 우리는 결국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걸뿐인 반가운 표정은 결코 진실한 통일의 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 참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나 하려 한다. 이 얘기는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화가의 이야기이다. 그 왕은 이마에 흉한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화가는 그런 흉한 모습을 그리게 되면 왕의 위신이 떨어질까봐 고민고민을 하다 결국 이마에 손을 짚고 쉬고 있는 왕의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이 화가와 같은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하나라도 더 덮어주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자유 평화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새벽

안 보 윤

문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또다시 새벽이었다.

다른 때와 달리 배어드는 잠을 쫓으며 기다리던 나는 요근래 세 번이나 들어야 했던 그 작은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작게 작게 무언가를 누르는 듯한 그 소리는 내 방을 지나 할머니 방까지 이어져 있었다.

할머니 방 문틈으로 그림자는 불빛이 나를 맞았다. 그때서야 난 깨달았다. 할머니의 울음소리였다는 걸...

방문이 열렸다.

내가 내민 손에 흠칫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부신 빛에 할머니 얼굴이 빨갛게 보였다. 빠알간 할머니의 손이 황급히 무언가를 서랍속에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중얼대듯 내게 말씀하셨다.

“지으기 북녘에...”

달룩대며 말을 잊지 못하시는 할머니 모습에 방문을 밀었다.

하얗게 비치던 불빛이 차츰 좁아지면서 할머니 얼굴도 까맣게 단허비렸다.

또다시 꾸욱꼭 내려앉는 그 소리에 난 방문밖에 주저앉아 버렸다.

우리 할머니는 올해 82을 넘기셨다.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처럼 들은 적이 있었다. 할머니께서 내 나이적부터 몰래 보아 오셨다는 옆집 청년.

함경에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그 사람과 도망치며 할머니 돈 벌면 올라가겠다고 눈물을 씹으셨다 하셨다.

그렇게 몇 년 후에 곧 6·25가 일어났고 만삭이 되어 어쩔 줄 몰라하시던 할머니께 할아버진 장모님을 모셔오겠다고 38선을 넘었다 했다.

북새뚱에 할아버질 기다리다 우리 엄마를 낳으셨다며 할머니가 가끔 씩씩하게 웃으

셨다. 할아버지가 어찌 생기셨는지 묻는 내 모습에도 할머니 그렇게 웃기만 하셨다.

그렇게 잊은 이야기였다.

아마 나만 잊어버린 이야기였으나 보다. 내일 모레가 설날인 오늘도 할머니께서
올고 계신 걸 보면.

할머니는 늘 상 위에 떡국 한 그릇을 더 올려 놓으셨다.

상 가장자리에 놓인 그 떡국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그렇게 버려지기가 일쑤였다.

그래도 매년 그 떡국 그릇은 그 자리에 있었다.

초등 학교 때, 첫 시간에 선생님께서 물으신 문제는 '통일이 되면' 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자기 얘기를 하느라 바빴다. 백두산 천지에 가 보고, 북한 친구들과
소풍가고...

그 속에서 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걸 보고 싶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방송에서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이 나오면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TV앞에 계시
곤 하셨다. 그 사람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안타까워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엄마는
답답한 듯 나가버리곤 하셨지만 나중엔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엄마를 볼 수 있었다.

할머니가 바라는 건 큰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조국의 대번영도, 세계 1위의
한국도 아니었다.

그저 완전한 하나의 한국이었다.

깜깜하던 거실이 점차 환해졌다. 그렇게 새벽이 지나가 버린 모양이었다.

방문이 열리고 할머니께서 나오셨다.

퐁퐁 부은 얼굴로 억지로 웃어보이시며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내년에는...볼 수 있겠지."

유난히 소란스럽게 쏟아지는 물소리에 난 할머니 방에 들어섰다.

낡은 서랍장 속에는 반으로 찢어져버린 사진 속에 할머니의 옛 모습만이 환하게
웃고 계셨다.

광주북한관

시부문

초등부

호랑이가 웃는 날/김아정 -----37

중등부

통일로를 걷는다/정동제 -----38

고등부

칠조망/서정복 -----41

산문부문

초등부

통일/정수연 -----42

중등부

우리의 봄을 기다리며/이지영 -----44

고등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최한순 -----46

호랑이가 웃는 날

김 아 정

광주지산초등학교 3학년

호랑이의 허리에
철조망을 박아놓고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호랑이의 아픈 몸을
누가 낮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이것을 빼내야 해요

호랑이의 상처가 낫는 날
호랑이는 웃으면서
우리들을 반겨 줄 거예요

호랑이의 웃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어요

통일로를 걷는다.

정 동 제

고려중학교 3학년

(1)

길을 대부분 그 끝이 없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길의 매력이다.
하지만 통일로는 그 끝이 있다.

길은 그나름의 역사를 지닌다.
역사에 따른 의미를 지닌다.
통일로는 조선 의주로가 근간이 된다.
여러 가지 민족의 한을 담았다.

길은 여러종류다.
통일로는 고속화도로다.
49.2km의 짧은거리다.
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은 그런 길이다.

길에는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어 의미가 있다.
의미에 따라 이름이 있다.
그길은 통일로이다.
조국통일의 염원을 담았다.

길은 하는 일이 있다.
통일로는
통일로라는 길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길은 만들어진 시대가 있다.
통일로는 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있을 때 착공.
72년
남북 공동성명발표때 완성됐다.
1년후
남북대화는 중단되었다.

(2)
길중에는 이미지를 가진 길이 있다.
이미지는 길손이 만든다.
통일로의 이미지
쓸쓸함
시원하지만 아픔이 흐르는 길이다.
아픔은
빗물을 타고 흘러
통일로를 적신다.

그렇게 해서
통일로는
왠지모르게
쓸쓸해진다.

흐르는 구름은 쓸쓸한 길의 친구라지만
통일로만은
그냥
바라보기만 한채
지나간다.

(3)
누구든
언젠간
통일이
되리라
믿는다.

그 간절한 마음을
그길에 실어
통일로에 실어서
지금도 꿈속에서
거닌다.
희망을 품고
아픔을 신고
그길을
통일로로

지금 난 통일로로 걷는다.

철조망

서 정 복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 1학년

높은 하늘 위로 흘러 가버린
슬픈 기억들

언제부터인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남긴 사람들
왜 이런 후회할 일을 남기었을까

쇠사슬은 사람들의 눈물에 녹슬어가고
우리의 아픈 가슴은 떨칠 수 없다

너는 무엇이기에 앞을 가로막고 있니
이 작은 세상에 너와 나를 못 만나게 하는가
너도 이젠 쉬어야 할 때……

나의 몸은 너를 통과하지 못 하지만
언제나 나의 마음은 너를 넘어
한 마리 비둘기 되어 한 없이 날고 있으련다

통 일

정 수 연

광주남초등학교 5학년

실룩이 푸르른 나무들이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6월이 되었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이런 날에 잠시나마 북한 어린이들과 통일을 생각하며 글을 쓰는 저는 광주 남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여러 친구들과 함께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어린이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말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매일 TV와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물질이 풍부해서 비리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야단들입니다. 또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에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 하다고 합니다. 전쟁을 누가 일으켰길래 한 나라에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게 하는지 저는 정치하는 국회의원 아저씨들은 왜 통일시키는데 힘을 안 쓰시고 매일 싸움이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돈이 많은 회사 사장님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가 아저씨들께 이상한 이유로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 돈을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내 주시면 그 분들을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말라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중 한 사람이 한끼만 굶으면 북한 주민 한 사람이 일주일 먹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전, 내가 활동하고 있는 우주 소년단에서 북한주민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호국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임진각에 가는 화 트인 도로를 달리다 보면, 군데 군데 총을 들고 경비를 서고 있는 군인 아저씨들이 계셨습니다. 전 그것을 보고 무척 궁금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누가 누굴 지키겠다고 저렇게 어깨에 총을 매고 있어야 하는지.

임진각에 도착해서 우리는 망원경으로 북한의 모습을 희미하게라도 구경을 하고

더 이상을 갈 수 없는 북한의 땅을 뒤로 하면서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망원경이 아닌 자동차로 그 곳까지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금강산과 백두산 천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다는 호랑이까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한 가지의 바람과 기다림이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 약 4000만명이 모두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랑새야 우리나라 허리에 묶여 있는 꼭 조인 허리띠를 풀어 줄 행운의 파랑새 말이에요.

산에 나무만 있다고 해서 푸르른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더욱 더 푸르르게 보이듯이 우리만 절약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모두 힘써서 통일이 되던 날 북한의 친구들과 언젠가는 함께 맞이할 5월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노래를 목청껏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마음속으로 불러볼 것입니다.

‘통일’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입고 싶은 옷 못 입는
북한의 우리 친구야
불쌍하고 가엾지만,
도와줄 길 없어 안타깝구나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통일에 힘써서
손에 손 잡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나라 되었으면……

우리의 봄을 기다리며

이 지 영

송원여자중학교 1학년

안녕, 친구야!

나는 한반도의 남쪽에 사는 한 소녀란다.

나의 편지가 너에게 도착할 거라고 믿진 않지만, 한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어진 우리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그 날을 생각하며 이 글을 계속 쓸게.

친구야, 며칠 전 나는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에 TV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게 되었단다. 먹을 끼니를 구하지 못한지도 여러날이 되어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 보던 TV를 그만 끄고 말았어.

그날 밤, 나는 그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조국분단의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단다. 불공평한 우리의 현실을 내 친구들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어서 똥똥하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너희는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

같은 한반도에 살면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천조망을 쳐버린 어른들을 난 이해할 수가 없단다. 남한의 어른들도, 북한의 어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면 가까워질 텐데,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결국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사실을 왜 어른들은 모르는 걸까.

초등학교 3학년 가을에 통일전망대에 가보게 되었어.

저 쪽으로 보이는 북녘 땅, 어린 맘에도 가슴 한 곳에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 올랐단다. 몇 발자국만 떼어 놓으면 갈 수 있을 법한데 천조망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 내 눈 앞에 펼쳐진 북녘의 산하는 지구상에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유일한 곳이었는데도 보면 볼수록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망원경을 통해 우리를 향해 썩어진 북한의 선전문구와 그 쪽으로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하마터면 “안녕하세요!”라

고 큰 소리로 외칠 뻔했지.

친구야, 내가 이제까지 우리 남한, 너희 북한이라는 말을 썼잖니? 지금 보니까 너무 어색한 것 같다. 너도 그렇게 느끼고 있니? 앞으로 남한, 북한 이런 말이 사라지고 대신 우리나라라는 말이 사용될 그 날을 나는 꿈꾸고 있어.

내겐 꿈이 또 하나 있단다. 그게 무엇인 줄 아니? 바로 월드컵을 북한에서도 같이 개최하게 되는 거야. 2002년에 일본과 남한은 국제 축구 경기인 월드컵을 공동개최하게 되는데 통일이 되어 남북한 단일 축구팀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민족 모두가 열싸안고 응원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렴. 정말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 않니?

우리들은 좀 과장되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듣고, 또 학교에서 배우며 자랐단다. 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도 통일의 의미와 그 이유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단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국방비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 많은 현실적인 장점을 예로 들어주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구나. 그러나 나는 믿어. 내 노력이 통일이라는 결실을 만듦이라는 것을 말야.

친구야!

우리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겠지. 어른이 되면 이전 세대들이 쌓아올렸던 불신과 이기주의라는 담을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이제껏 꿈꿔온 희망과 사랑의 탑을 쌓아올리며 우리 하나되어보지 않으련?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지 않으련? 지금의 엄마, 아빠들이 통일을 이루어줬다고 말야. 후우, 이제껏 느낀 북한의 어두운 모습이 활짝 걷히는 기분이야. 밝아오는 미래가 느껴지는 것 같아.

어쩌면 통일은 내일이라도 불쑥 찾아 온 손님일지도 몰라.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 꿈이어도 상관없어. 꿈은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거든.

겨울이 깊어갈수록 봄이 오는 시간은 더욱 더 가까워지듯 우리의 봄이 오는 그 날, 그 기다리던 봄이 오면 그 곳으로 가자. 그리운 우리 형제와 우리의 고향이 있는 그 곳으로 두 손을 꼬옥 잡고 마음껏 웃으면서…….

97년 6월 20일
우리의 봄을 기다리며
너의 친구로부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최 한 순

전남여자고등학교 1학년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같은 민족끼리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치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부끄럽게 장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세계 여러나라가 결의한 유엔의 지원을 받았으나 지금도 휴전선을 경계로 47년이란 긴 세월을 휴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이 다가오면 슬퍼하는 이산가족과 현 북한 식량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입각해 볼 때 우리에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 실태를 돌아본 세계 식량 계획(WFP)의 한 관계자는 북한 시민들을 '아주 야윈 다리, 근육을 상실한 아주 야윈 몸, 심하게는 뼈가 드러난다'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벚짚과 옥수수 줄기, 나무 껍질을 가루로 빵아 먹어 장출혈까지 일으키는 것은 예사이고 풀뿌리를 캐어먹고 부드러운 흙까지 먹는 어린이도 보았다고 하는가 하면, 신의주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어린이를 보았다는 목격담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펼떡의 대지'라는 소설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식을 헤치어 인육을 먹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확실히 북한의 식량사정은 바닥에 이르렀으며, 심한 영양실조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측의 무방비 상태가 계속 된다면 아프리카나 소말리아에서만 볼 수 있었던 뼈가 앙상하고 배가 불룩한 큰 눈망울의 불쌍한 어린이들의 참상을 북한에서도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지원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온 우리나라는 아마도 95년 쌀 수출 당시의 강릉무장 간첩 침투 사건을 잊지 못하고 쌀을 보내 주면

군량미가 될 것을 우려한 반면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미국과만 대화를 하려는 북한이 껄뻐해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달 전 뉴욕에서 열린 4차회담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본 회담 참석의 진재로 1백 50만톤의 식량지원을 요청한 북한은 다행히 조금씩 현실을 인식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규모 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북한은 시급히 알아야 합니다.

국제 적십자나 세계 식량 계획, 국제비정부기구 등이 지원해 나르고 있지만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식량문제 해결의 방법은 북한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국가의 일차적인 책임도 지지못하면서 체면에만 매달리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최악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취해야 할 입장을 세가지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식량문제도 덜고 동포애의 확인을 통한 동질성 회복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 나라가 민간 차원의 쌀 지원을 허용하고 기업들까지 여기에 참여하도록 한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셋째,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전쟁 준비의 태도를 버리고 지원받은 쌀을 군량미로 쓰지 않고 굶주린 동포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 조건이 먼저 갖추어졌을 때 우리 민족간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통일도 우리 민족앞에 한발짝 다가서 줄 것입니다. 입속에 버릇처럼 맴도는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노래가 그전부터 불리어져 내려온 것도 그만큼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단결된 뜻이 깊었던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염원했고 곧 이룰 것이며, 실패하지 않을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다음 사실의 참 의미를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0년 전격 통일을 발표해 우리의 부러움을 샀던 '예멘'은 통일 4년만에 다시 전쟁의 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태는 양쪽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전통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 당시 남북 예멘은 민족과 언어만 같았을 뿐 사회 문화적으로는 거의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북 예멘은 오스만터키의 지배를 받은 영향이 남아 있었고, 남 예멘은 자본주의 체제 영국의 지배를 받은 영향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권에서 대립한 두 예멘은 통일 실패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적과의 동침론'을 비교해 보며 어디선가 얼핏 들은 '적이면서 동반자'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의 모순을 빗대어 표현한 말로써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만 보는 안보 중심의 인식을 국민에게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으로서 동반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태도를 나타낸 말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빨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일을 서두르는 나라일수록 통일을 하기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넉넉히 알려 주는 듯 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듯이 무조건 통일을 하자고 밀어부치는 것보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는 통일 과제의 해결 실마리를 잡아 보았습니다.

첫째, 통일 대비 교육의 방향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준에 맞는 통일에 대비한 교육을 확립해서 통일이 되었을 때 무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는 통일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과 의지, 즉 꿈을 가꾸기에 강점을 두고 중·고·대학생에 이룰수록 남북 분단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나라 기둥들에게 현

실을 왜곡한 통일론으로는 맹목적, 환상적 통일론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에 대한 통일 교육은 통일에 대한 지식과 정보 및 논의 태도와 행동 규범을 균형적으로 고수하되 기성세대로서의 통일 성취에 대한 공동 책임과 연대감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과 신뢰 회복을 위한 잦은 왕래와 직접 대화의 횟수를 늘여야 합니다. 약 41년간 긴 분단의 세월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슬픔인 동시에 서로간의 불신감과 경계심만을 높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높기만 했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진실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 지원에 힘써야 합니다. 식량도 없다는 북한에게 문화적 교양을 요구한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북한이 전쟁에 더 이상 힘쓰지 않는다는 조약 체결하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텔레비전이나 진화 등을 대중화 시켜 그곳에서라도 조금씩 남한 생활에 적응해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시한 바를 잘 지켜 나가서 우리 민족이 그 옛날 단군의 한 자손으로 다시 만나는 날, 우리는 예멘과 같은 비극도 불러 일으키지 않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며 당당한 통일국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땐 더 나은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민족은 어느 누구의 나라보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빛나는 통일국이 될 것입니다.

청주북한관

시부문

초 등 부

통일된 호랑이 지도/장태진 ----- 53

중 등 부

통일이 오면/강하나 ----- 56

고 등 부

한 거래의 임원/박병연 ----- 58

산문부문

초 등 부

무제/황보혜진 ----- 60

중 등 부

통일이 되면/김주영 ----- 62

고 등 부

통일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안승재 ----- 64

통일된 호랑이 지도

장 예 진

봉명초등학교 6학년

불타는 눈빛과
굵직한 팔다리
호랑이는 매섭게 노려보며
백두산을 호령한다

다섯 개의 꽃잎의
아름다운 우리꽃
무궁화는 은은한 빛깔로
화사함을 자랑한다

하지만,
용맹스런 호랑이도
아름다운 무궁화도
허리가 끊어졌다면
줄기가 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단군께서 세우신
삼천리 반도
무궁화 동산

우리는
단군의 핏줄을 이어받은
한 겨레인데,

우리나라
호랑이 지도에는
왜,
동포와 동포를 갈라놓게 하는,

고통스레
호랑이가 울부짖게 하는
휴전선이 그어져 있을까?

저 북쪽 백두산 기슭의
피리부는 아이들,
남해의 해맑은 물
담그고 싶고,

저 남쪽 제주도 섬에서
조개 줍는 아이들,
백두산 천지에서서
놀고 싶은데

휴전선에 걸려서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들 마음

휴전선 때문에

산맥도 하나요
강물도 하난데

사람만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를 그리며
애태워야 하나?

남녘과 북녘을 이어주는
저 높은 하늘

하늘을 높이 나는 새들아!

남녘 하늘의 그리움
북녘 하늘의 보고픔
모두 날라다
서로에게 전해주렴

우리 땅 읊아맨
그 휴전선을

호랑이의 허리 틀어맨
그 휴전선을

통일된 지도에서
씩씩 지워 버리게

통일이 오면

강 하 나
문의중학교 1학년

귀를 기울여 볼꺼야
아련한 기억속에 떠오르는
코흘리개 시절 소꿉놀이 하던
그때의 따뜻한 정이
새끼 손톱만큼 이나마
흐르고 있겠지

손을 잡아 볼꺼야
먼 옛날, 수업이 기다란
할배로부터 이은
한 조선 민족의 대쪽같은
녹색의 실핏줄이 흐르고 있나
보게……

통일은
가까스로 섰다가
이산가족의 마음을 태우며
도로 쓰러져 버리는
오뎅이 같은 우리의 바램

도마위의 무같이
썩둑 반으로 잘린
토끼의 허리가
다시 붙어

다시 한번 더
옛 추억속. 오십여년 전
아득한 너의 따스한 손
잡을 수 있다면

함께 울고 웃으며
얼싸안고 아리랑을 추어야지

통일이 오면은……

한 겨레의 염원

박 병 연

일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오늘,
우리가 바치는 바닷빛 기도가
세월의 강물에 흐르고 흘러,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듭거듭 태어나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고뇌의 잡풀 무성한 좁디좁은 마음,
시퍼렇게 멍이 든 기다림의 마음에
환한 빛과 향기가 되게 하시어
단, 하나 염원의 촛불을
밝히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의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소리내어 외쳐 버리기엔
너무나도 가슴 아픈 50년의 이야기

갈라진 고통을 말하지 않고
쓰디 쓴 눈물을 안으로 삼키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우리네 민족……

푸른 하늘과 맞닿을 듯한
신령한 아름다움의 백두산 위에서도
큰 비로 불어나던 두만강가에서도
오랜 한(限)과 슬픔에 젖은
그리움의 외침,
상처 받은 눈물이여……

부디,
다시 태어나소서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희망으로
고통을 이겨낸 뒤 더욱 아름답고 지고한 사랑으로
새로이 태어나소서

이제,
물오른 수목처럼 싱싱한 사랑을
메마른 가슴마다에 심어 주시어
밤마다 별을 안고 기도하는 물빛의 염원을
한 겨레의 염원으로 승화시켜,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는
통일의 때가 되게 하소서

무 제

황보 예 진

서원초등학교 6학년

“아빠, 더 빨리 가요.”

괴산에 사시는 할아버지 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동생은 즐거운 듯, 떠들어 댔다. 나도 오랜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 뵙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들떠 있었지만, 아빠만은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아빠는 늘 말이 없으시다. 또 큰아버지 생각을 하시나 보다.

청주에서 출발한지 1시간 후, 드디어 할아버지 택에 도착했다. 내 동생과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이구,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할머니께서 뒤어 나오시며 반겨 주셨다. 마루에 앉아 오순도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빠는 방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며 누굴 찾고 계셨다.

“아빠, 뭐 하세요?”

“응, 큰아버지 찾고 있단다.”

“아빠, 저도 인사 드릴래요.”

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같이 안방으로 들어가니 가만히 앉아 계시는 큰아버지가 눈에 띄었다.

“형, 좀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집에만 있으면 뭐해?”

“나, 돈 좀 주라.”

큰아버지께서 작은 소리로 아빠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아빠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셨다. 큰아버지는 돈을 손에 꼭 쥐고 일어나시더니 이상하게 웃으시면서 밖으로 나가셨다. 아빠는 그런 큰아버지를 보고 나서 한숨을 쉬셨다. 우리 큰아버지께서는 장가도 못 가시고, 나이는 많지만 행동은 어린애 같기 때문이다.

큰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는 장손이라 집 안의 귀여움을 독차지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6·25 전쟁의 피난길에 폭탄의 파편으로 충격을 받으셨다.

“에이구, 우리 늙은이들이 죽으면 저 놈 불쌍해서 어찌나?”

할머니께서는 또 눈물을 흘리신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할머니께서 우시자 집 안은 조용해지고, 어른들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는 것을 남몰래 느낄 수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6·25 전쟁이 우리 집안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말로만 통일 얘기를 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 일은 없었다. 통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고 우리 할머니 댁에도 값비싼 행복선물을 할 수 있을텐데, 통일이 그렇게 힘든 걸까?

나는 이제 남·북간에 중요함을 알고 북한의 언어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하겠다.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도 죽고 없어진 지금, 남북의 평화통일만이 우리 모두의 살길일 것이다.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된 세상이 오면 수십년 된 우리 큰아버지의 충격도 씻은 듯이 나올 수 있으리라…….

어느새, 할머니는 울음을 그치시더니 우리를 향해 힘없이 웃으셨다. 이런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통일에 대비해서 할머니의 큰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

통일이 되면

김 주 영

서원중학교 3학년

우리는 해방 이후 어렵사리 어느 정도의 경제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지구 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즉, 광복은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리워 눈물과 시름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항상 북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요즘같이 식량난을 심하게 겪고 있는 시기에는 통일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밭벗고 나서서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에서 벗어나 여유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옷가지며 식량 등을 많이 원조해 주고 있다. 또 지금의 우리 나라 국민 전체가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염원 인간띠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이렇듯 남한국민 전체가 통일을 바라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의 생활, 경제 등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자.

먼저 경제면에서, 통일이 되면 시장의 규모가 전 부문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간 사양 사업이 없는 민족일대 호황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의 경제불황을 이겨내고 지금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 후 우리의 인구는 약 7천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런 인구규모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세계 여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외화를 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매년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이 되면 관광 지역이 넓어진다고 하니, 발전된 한국, 경치 좋고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 이라는 한국을 보러 외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외화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하지만 자원이 풍부해도 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일할 의욕을 상실한 노동력 때문에 산업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발달된 과학기술로 인해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남북한은 막대한 비용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아마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사회복지비라든가 교육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회, 복지 교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끼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산가족들이 행복한 재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 할머니의 경우만 봐도 북한에 두고 온 우리 할머니의 고모 삼촌 등을 그리워하며 사신다. 이런 것이 바로 이산가족의 경우이다. 통일이 된다면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그런만큼 행복한 사회가 있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가가 튼튼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통일의 장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다. 통일! 통일은 여러 장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같은 단군의 자손인 이상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통일을 위해 행사를 베풀든지,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부분적으로 허용, 또는 편지 왕래 등을 한다면 통일의 길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부분적으로 젊은 계층간에 통일이 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꼭 무력통일이 아니고서도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자.

통일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

안 승 재

신흥고등학교 2학년

얼마 전 학교에서 원남하신 분을 초청해 통일 안보 교육을 한 적이 있었다. 북한에서 군생활도 오래하신 분이었고, 핵에 관련된 일도 많이 하신 분이어서 북한의 실상을 많이 알아 생생하게 북한의 실상을 전해주시실 수 있던 분이셨다. 하지만 앞에 앉은 몇몇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강연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마치 수학 시간에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그저 서로 얘기만 나눌 뿐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는 분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언제부턴가 청소년들에게 “통일”이란 말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당연하게 부르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 소원을 말하라면 “통일”이라고 말하는 청소년은 찾기 힘들어졌다.

어찌다 텔레비전에서 북한의 방송이 나오면 서커스 구경하듯 보고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서태지와 아이들이 청소년들에게 통일정신을 심어 주기 위한 의도를 담아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도 만들고, 동족상잔의 아픔인 6·25전쟁의 폐허로 남은 비무장지대를 찾아가서 뮤직비디오도 찍은 적이 있지만 다른 히트곡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관심 밖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청소년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재의 우리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야 한다. 폐쇄사회인 북한을 고려해 볼 때,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겠지만 같은 민족인 우리조차 북한의 현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최근 방송국들이 북한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게하는 여러 장면을 보도한 적이 있었다. 중국쪽에서 촬영된 이 장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빈곤에 휩싸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그리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처지가 가슴 한 구석을 아프게 했다. 이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우리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식량 및 물자원조에도 참여해야겠다. 최근 한전을 중심으로 한 KEDO의 경수로 사업도 직통전화개설, 한진 직원 파견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이 역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둘째, 분단 후 50년이 넘으며 금 가기 시작한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분단 후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른 언어관, 언어정책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언어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는 바로 민족문제의 알맹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말과 우리말 사이에 발음, 철자법, 띄어쓰기, 문체 등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중 서로 다른 어휘는 의사소통에 까지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북한말과 우리말의 다른 어휘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비라이어티쇼가 북한에선 노래춤 묶음으로, 소형택시가 발바리차로 손자가 두벌자식, 남편은 세대주 또는 나그네, 뮤지컬은 가무이야기, 상추는 부꾸로 그 뜻을 서로 짐작도 할 수 없을만큼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북간 단절된 교류 또한 동질성 회복에 장애를 주고 있다.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교류 또한 병행되어야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

또,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민족적 숙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우리에게 통일을 이루어야 할 많은 논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풀어야 하는 민족의 한이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지니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면 통일을 더욱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엄원이며 사명이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많지만,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치지면 앞으로 다가올 무한경쟁의 21세기를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으로써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프랑스 사람들의 정신속에 인식되어 있는 “폴레랑스”를 배워야 한다.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다른 민족, 특히 독일인과 달리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이 없는 어우러진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정신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 사이의 벽은 쉽게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고향을 북한에 두고 오신 많은 분들의 눈가에 웃음이 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제주북한관

시 부문

초 등 부

통인의 문/김명은 ----- 69

중 등 부

둘/고정현 ----- 72

고 등 부

통일이여 오거라/이송희 ----- 75

산문 부문

초 등 부

연에 담긴 하늘빛 소망/김보람 ----- 76

중 등 부

우리가 만나는 날을 위하여/송지은 ----- 78

고 등 부

마음의 문/이남경 ----- 80

통일의 문

김 명 은
한천초등학교 6학년

꿈속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통일이라는
마음의 문 앞에

기쁨이라는 웃음 뒤에
슬픔이라는 울음으로 가득찬

눈물의 광경을
나는 보았습니다

사치속에 바동대는
우리의 모습 뒤에는

굶주림 속에 허우적 거리는
북한 친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통일이라는 문에
두 개의 길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나는 압니다

꿈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과 고통이
동시에 교차되는

슬프고 힘겨운 신음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는
풍만한 우리의 소리에는

분명 “배고파요”라는
고통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은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설사, 내가 꿈에서
깨어났다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통일은
사랑·믿음·순종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큰 열매를 맺었다는 것과

차가운 우리 마음에서
뜨거운 동지애의 피를
느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문이
조금씩 빛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

고 정 현

제주여자중학교 2학년

그 땅 그곳에
둘이되어버린 하나가 있습니다.
둘은
슬픔, 애절, 단절된 연과
다시 찾아올 희망으로
여기에
젖어 스며듭니다.

슬픔은
갈려진 하나에 대한
아린 아픔입니다.
가는 철실로 나뉘어진
하나의
퇴색된 기억속의 함께해온
추억과
같은 생에 대한
무수한 동경, 사랑 그리고 잊혀진 평화의
가슴 저미는
아픔으로
슬픔은 젖어듭니다.

애절은
잊혀져가는
반쪽의
한없는 그리움입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
조각나버린 애닦픈 옛이야기의
사랑했던 반쪽은
그리움과 그리움에 묻혀
눈물로
흐려져 갑니다.
잊고 싶지 않던 사랑의 연민으로
그렇게
애절은 시린공허로 남습니다.

단절된 연은
닿지 않는 갈림 저편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잘려서
두동강 나버린 날카로움에
서로를 베어
벌어진 상처의
소리내지 못하는 신음소리로
단절된 인연은
목놓아 불러도 이젠 들리지않는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잘려져 부서집니다.

허나

다시찾아올 희망은

무한함으로

슬픔과 애절 그리고 슬픈 연을

감싸안습니다.

뼈속이 튀어나온

미움과 오해의 아픔에

희망은 절려가지만

감싸안은 자신의 손을 놓지않습니다.

찢린 상처에

쓰린 눈물과 한숨의 비통이

배어나오지만

희망은

그저 묵묵히

감싸안은 손으로

희망의 씨앗을 띄워갑니다.

둘은

갈려진 상처의

아픔에도

서로를 기억에 묻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이기 때문에

하나였던 옛일을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이여 오거라

이 승 희

중문상업고등학교 2학년

휴전선

그 곳은 아직 민족의 설움이

강물되어 흐르는

아무도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곳

저 멀리 아스라이 높은 곳에서

작은 새들은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휴전선 검은 금 그어지고

가시덤불 철조망 세워지던 날

그곳엔 더 이상 샛소리 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바라고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줄기 금을 긋는 여리고 아픈길

새벽의 옷깃을 여미며

어디선가 멀리서 꿈일 듯 이어지는

통일의 염원소리 부르짖으며

땅위로 머리 쳐들고

민족의 염원으로 외친다

통일이여 오거라!

연에 담긴 하늘빛 소망

김 보 램

도남초등학교 6학년

내가 2학년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연날리기 하던 일이 생각난다.

통일 안보 행사날이었다. 모두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기에 바빴다. 작품이 완성되면 운동장에 나가 연날리기를 하기로 하자. 어떤 친구는 연날리기를 빨리 하기 위해 작품을 대강 마쳐 버리기도 했다.

선생님께서 연날리기를 할 때 통일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적고 예쁘게 접은 뒤 연에 매달아 날리라고 하셨다. 어떤 소망을 적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막상 떠오르던 것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들은 어떤 소망을 적었을까, 살짝 보았더니, '북한에 가 보았으면...' '북한 아이랑 만났으면 좋겠다...'고 적어 넣었다. 난 그저 '북한은 어디 쯤 일까?' 라고 소망을 적어 보았다. 사실 그때 통일에 대한 개념이나 북한 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탓에 그저 글씨만 또박또박 적어 넣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연은 우리들의 소망을 하늘에 전달한 집배원이 되었던 것이다. 연이 곧두박질 칠때면 연을 하늘에 올려 보려고 애를 쓰고, 연이 다른 연과 서로 엉킬까봐 초조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빛은 통일의 소망을 이루려던 작은 믿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통일' 하면 맑은 일을 잘 해야하고 북한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떠들석인데, 물론 틀린 발언은 아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저 '통일이 되면 밀해? 정치만 어지러워 지고 경제파란에다 이익보는 게 뭐 있겠어? 이대호가 좋아.' 하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이런 통일에 대한 의식부터가 통일이 안되는 문제의 원인이니 어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보일까? 통일을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만 모두 갖고 있다면 통일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선 북한의 실태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심한 흉년이 들어 주민 대부분이 굶주리고 허기져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소말리아, 이디오피아의 과거 실상보다 북한의 상태가 더욱 심하다. 식량이 없어 풀이나 나무껍질로 죽을 수

어 먹는 것으로도 끼니를 모두 못 채우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수 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김정일의 생일은 아주 성대하고 거대하게 치렀다고 하니...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신념으로 임금이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첫째 일이었는데, 이를 북한에 비교하면 끔찍하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텔레비전에서 본 북한인은 눈은 떠 있으나 빼만 앙상히 남아있는 비참한 모습이 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실상을 너무 몰라주는 듯 하다. 북한에서는 지금 전쟁준비에 한창이러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걱정은커녕 머릿속에 지금 전쟁중에 휴전이란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으니...내가 만약 또 다시 연에 소망을 실어 보낸다면 통일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동시에 쓰겠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하나있다면
파랑새가 되고 싶어요
못가보던 금강산도
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지우개가 되고 싶어요
오가지 못하는 휴전선 지우고
이산가족 슬픔을
댈아줄 수 있으니까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통일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 통일시켜
할머니의 아픈 추억
웃음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소망을 하늘에 보내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통일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
가을 바람 부는 날, 연을 날려 본다. 연에 담긴 하늘빛 소망을...

우리가 만나는 날을 위하여

송 지 은

아라중학교 2학년

나와 같은 15살 친구들에게
안녕?

난 따뜻한 남쪽 제주에서 이 풍선을 띄운 여자아이란다. 동글한 얼굴에 작은 눈, 작지않은 코 도톰한 입술, 그리고 통통하게 살진 양 볼엔 깊숙한 보조개가 들어가지. 난, 엉덩이에도 보조개가 있대. 엄마께선

“지은인 엉덩이에도 보조개가 다 있네. 살 좀 빼야지.”

라고 말할 정도야. 옛날엔 엉덩이 보조개를 갖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난 엉덩이 보조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참,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의 모습은 어떨까? 하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혹시 TV나 책, 잡지 등에서 자주 나오는 먹을 음식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한 모습을 한 친구라면 내가 너무 미안해 질 것 같아.

내 몸을 보련.

어디에서도 앙상하게 마른 곳을 찾을 수 없고 살이 너무 찌서 뱃살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기도 해. 이곳 친구들은 흔히 나 같은 뱃살을 보고 “삼겹살”이라고 놀려. 이제 상상이 가니? 너희들은 뼈만 앙상한데 말이야... 이 생각만 하면 너무 미안해.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군인처럼 전쟁 훈련을 받고 공산주의에 젖어있는 친구라면, 나와 자주 싸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난 나의 주장을 세우는 것을 무척 좋아해. 그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해도 자주 그 주장에 대해 굴복하지 않는 성격이야. 좀 이기적이지?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너희들과 만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돼. 나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고쳐야겠어. 왜냐하면 이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친구들과도 자주 싸웠는데, 너희들과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어른들도 싸우는데 우리는 서로 마음을 모아 통일을 기원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무척 보고 싶어. 한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만나면 낯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산가족들이 어렸을 때 헤어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부둥켜 안고 울 듯이…….

친구야.

난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

너희들이 이 풍선에 띄운 내 편지를 읽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간이 통일을 기원하는가가 문제야. 너희 북한의 생활의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 되겠지만 TV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자주 듣게 돼. 우리는 서로 한 민족이지만 40여년 동안 분단이 되어 있어서 사상은 물론이고 문화와 언어까지도 변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벌써 변했을 지도 몰라. 중요한 것은 언어가 변하면서 그에 따른 뜻도 변했을만 한데 내가 아무리 너희들과 마음을 합치려 한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지. 그리고 40여년이란 긴 시간속에서 남한과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생긴 것 같아. 검은색이 흰색을 보듯 흰색이 검은색을 보듯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경계한다는 거야. 검은색과 흰색이 섞이게 된다면 둥글게 뭉친 하나의 회색, 그러니까 통일이 될텐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같았으면 해. 이런 문제들과 통일을 대비하는 일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도 모으고 있고…….

빨리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때가 되면 처음엔 힘이 들고 서로에 대한 불만도 많겠지만 그럴때마다 이제까지 우리민족이 힘을 합쳐 이겨내 온 지난 역사들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꺼야. 우린 한 민족. 그리고 한 핏줄의 형제잖아. 나도 너희들을 자주 생각할꺼야. 그리고 너희들도 나 처럼 엉덩이 보조개가 들어 갔으면 좋겠다.

친구야.

우리 기도하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날을 위해서.

그럼 이만 줄일게. 몸 건강하고…….

안녕.

1997년 10월 18일

남한의 제주에서

지은이가

마음의 문

이 남 경

신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친구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다. 그들의 눈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통일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다고 몇 주 전 귀순용사의 강연 때나 그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지금이나 그들의 눈은 한결같이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 난 그것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

솔직한 내 심정을 털어 놓는다. 사실 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었노라고, 아니 더 솔직해지기로 하자. 난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을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혼란, 이질감, 차별, 부적응, 사회문제... 통일에 대한 염원보다는 그로 인한 여파, 그것도 좋지 않은 여파만이 나의 머리속에 존재했다.

수업시간에 그런 것을 배웠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쓸데 없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으며 함께 힘을 합쳐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다고

'지금도 별 문제 없는데 뭐'

난 그랬다. 아니, 반 친구들 대부분이 그랬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아직도 이 노래를 배웠던 초등학교 시절이 생생하다. 난 되돌아 본다. 그때 내가 이 노래를 배우며 무슨 생각을 했었나. 학교종이 땡땡이나 통일이여 오라나 다 같은 동요일 뿐이지 그 노래 가사의 의미나 중요성은 되짚어 보지 않았다. 그런 나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다. 그저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맞춰 흥얼거림에 의미를 두었지 우리가 수 십번 외치는 통일이란 말은 무의미하게 지나쳤다.

북한 식량부족 문제도 각종 언론기관이 떠들썩 했던 얼마 전 일을 모두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꽃제비라하여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뒤, 연변족에게 밥을 얻어 먹고 다시 국경을 넘어 돌아가던 사람들, 희멀건 옥수수죽 한 냄비에 온 식구가 달라 붙어 바닥까지 훑아 먹던 사람들, 시부모가 머리를 잡아 먹으려 했다는 흥흥한

소문들... 그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지었던 사람들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난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게 닫혀있음을 알았다. 난 그저 그들과 남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북한 주민 돕기 성금을 얼마씩 모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하던 중 한 친구가 말했다.

“난 많이 모으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성금 모은다고 해서 그게 고스란히 북한 사람들에게 가는 줄 아니? 그리고 솔직히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공산주의 좋다고 체제이루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와서 자기네 어려우니까 우리 도움 은근히 받겠다는 건 너무 웃긴 생각 아니니?”

난 느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지나쳐 버리는 일상속에서 우린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아닌 너와 나로 구분지어 가고 있다. 아무리 수업시간에 21세기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통일이라고 배워도 우린 나 몰라라 지나치고 있다. 왜일까? 그렇게 많이 들어온 통일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낯선 것일까?

난 나중에야 알았다. 지식의 하나로써 머리에 담아둘 순 있었지만 느낌으로써 가슴속에 담아둘 순 없었던 것이 바로 통일, 그것이라는 걸 말이다.

귀순 용사의 강연을 들으며 난 그 사실을 알았다.

“목숨을 걸다시피 하여 남한으로 넘어 온 뒤,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모두 탈출시킨 훌륭한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우리 앞에 선 귀순 용사. 20대 후반이란 것이 무색할 만큼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에게서 난 그 한 단어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생이라는 단어였다. 그의 얼굴이, 그 얼굴의 주름이, 그의 눈이 그걸 말하고 있었다. 난 그의 강연에 몰두했다. 긴가 민가 싶었던 그 많은 일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던 북한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움이 번져가는 순간이었다.

북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발전시켜 보려는 의지도 없는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종당하는 힘 없는 사람들이었다.

50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얘기를 듣고도 열리지 않았던 나의 마음이 열렸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난 깨달았다. 우린 반 만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한 민족임을, 그러나 자리를 일어

서며 그 귀순 용사에게 향해지던 미안함을 감춘 수가 없었다. 방금 전의 강연 때문이었는지 많은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난 생각해 보았다. 과연 나와 같이 맘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이가 몇이나 될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통일이란 단어를 수도 없이 들어왔다.

분단의 원인에서부터 통일의 필요성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 통일이란 말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우린 느껴야 한다. 무엇이든 집어 넣을 수 있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무심코 지나치는 노래속에서, TV속 영상이 아닌 그네들의 눈빛속에서, 이제 새 삶을 살려하는 귀순자들의 가슴속에서 통일을 느끼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정치적 체제가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모든이의 마음이 열리는 날. 그날이 바로 통일의 날이 될 것이다.

북한관안내

부 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 (051)808-7960

인 천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4동 8-7
자유회관 (052)868-0113

광 주

광주광역시 북구운암동 164-1
어린이대공원(062)525-7722

고 성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 (02)901-0088

철 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동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0392)682-3129

양 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편치북지구 (0364)481-3001

임진각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4-2
임진각경내 (0348)52-7575

오두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8
통일전망대 (0348)942-2390

청 주

충청북도 청주시 명암동 신72-13
우암어린이회관 (0431)56-5050

제 주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968-2
자유회관 (064)51-0191

동인르 가는 길

발행처: 통일원 통일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연락처: 901-7025

발행일: 1997년 12월 25일

인쇄처: 양동문화사 (266-0892)

11111111